

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 7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이 북구 두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실내 온도 위반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형상가 '실내온도 20도' 단속 현장 가보니

손님 떨어질까 상인 '전전공공' 입구에 가림막 설치 '꼼수영업'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니 적극 협조해야죠. 하지만 전기요금은 기껏해야 10만원선인데 손님 한번 놓치면 더 큰 손해를 보죠...”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대형 옷 가게. '실내온도 20도 유지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에게 주인이 푸념을 늘어 놓았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속이 시작된 충장로 1가 입구부터 3가 사이 900여 m 구간은 영하의 날씨에도 30여 곳 이상의 상점이 비닐천막 등으로 입구를 가리고 영업 중이다.

대형 옷가게와 안경점 등 3~4곳은 아예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았다.

단속에 나선 동구청 관계자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대부분의 업소가 비닐 소재의 투명천막으로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다. 지난해 계도이후 새로 등장한 풍경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며 손님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공여지책'이라는 설명이다.

단속 공무원도 “현행 규정상 비닐 천막으로 입구를 막은 것을 놓고 문을 열어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광주 동구청의 단속 대상 150여 개 업소 중 문을 열고 영업한 12개 업소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패태로 부과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앞서 광주시 북구청의 단속팀도 전대 후문 200여 곳의 상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고 실시된 이날 단속에서는 대상 업소 중 단 2곳만이 비닐천막 일부를 찢고 영업해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패태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단속에는 대형 건물에 대한 적정 온도 측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들어서자 목도리나 패딩점퍼를 입은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측정 결과 이곳의 온도는 14~15도 수준이었고 2층 의류 매장은 18~18.3도가 찍혔다.

일부 판매직원들은 “며칠 전보다 훨씬 추워져 오전 시간대에는 일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추우면 손님이 빨리 가버려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마트를 찾은 박모(여·54)씨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 홍보 때문인지 요즘 마트나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가 예전보다 낮아진 것 같다”며 “기온이 떨어져 추기는 하지만 어차피 겨울엔 외투를 입고 일을 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계약전력 100~3000kW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집중 단속 중이며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이 기간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안되며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7시까지 내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되 옥외광고물이 모두 내온사인인 경우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출산, 도와 줄 분 없나요”

8년전 피해 여성...출산 준비물·유아용품 기다려

출산을 앞둔 8년 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돕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7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출산 예정인 피해자 A(여·25)씨의 출산 준비물과 유아용품 마련 등을 위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청각장애 1급에다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청각장애인 남편과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다. 부모도 장애가 있어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성금·출산물품·유아용품 후원 등 도움을 손길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후원문의는 메일(gjyolsa@hanmail.net)로 가능하며 후원계좌는 광주은행 110-121-848735(예금주 김도연)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가해자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18재단 신임 이사장 오재일 교수

5·18 기념재단 제11대 신임 이사장에 오재일(60·사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5·18 기념재단은 7일 오후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오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광주 시민연대와 광주시 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을 해왔고 지난 1999년에는 5·18 기념재단 이사 겸 기획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달 25일부터 2년간이며 김준태 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폭력 상담교사 올해 1000명 늘린다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위 기학생의 상담·치유를 맡는 전문 상담교사가 올해 1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정부중립대책에 따라 연내 전국 사립과 공립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500명씩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증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대로 시행되면 전문 상담교사의 전국 초·중·고 배치율은 약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우선 학교와 학교폭력 발생 빈도 등을 토대로 상담교사가 가장 필요한 사립학교를 정해 이 학교들이 올해 3월까지 교사 500명을 임용할 수 있게 한다.

/연철뉴스

어린이집 원장초과편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정원을 넘겨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 집 원장에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어린이집 원장 B씨가 영남 사 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단순히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B씨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연철뉴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featur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temperatures, and a table of sea temperature forecasts for the day and night.

“10억 생긴다면 감옥 1년 쯤이야” 고교생 44%가 답변...물질만능주의 우려

우리나라 고등학교생 10명 중 4명 이상이 “10억원이 생긴다면 잘 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최근 초·중·고교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0억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해도 무릅쓰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44%에 달했다. 중학생은 28%를 차지했고 초등학교생 중에서도 12%나 같은 대답을 해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물질만능주의가 광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정직지수’를 산출한 결과 초등학교생 85점, 중학생 75점, 고등학생 67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윤리의

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별로 보면 ‘남의 물건을 주워서 내가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생 36%, 중학생 51%, 고등학생 62%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역시 학년이 높을수록 급격히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생 16%, 중학생 58%, 고등학생 84%가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속세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도 괜찮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47%, 68%, 7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7~10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8% 포인트다. /연철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Adventure' (제주여행)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transportation options. Includes text like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and '특급호텔과 함께 겨울 특가여행!!'.